

### “불우 노인·어린이·미혼모 지원”

#### 동화사 자원봉사단장 성묵 스님

“조계종 교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발족되는 자원봉사단인 만큼 젊은 불심을 한데 모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체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8일 발족한 조계종 제9교구 자원봉사단 단장을 맡은 성묵 스님(동화사 사회국장)은 “이제까지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사회봉사 분야에 관심을 덜 쏟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DMF 관리체제 이후 빈부격차의 심화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불교계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었다”고 창립배경을 밝혔다.

“처음에는 단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봉사단 구성에 회의적이었으나 많은 신도들이 참가해 고마울 뿐”이라는 스님은 “청도, 칠곡, 고령, 성주 등 교구 산하 21개 말사를 중심으로 400여명이 봉사단에 참가했으며, 앞으로는 단원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우선 봉사단을 지역별로 21개 지회로 나누고, 활동영역별로 33개 팀을 구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 여러 말사에서 하고 있는 무의탁노인 무료급식, 결식아동돕기

및 미혼모 지원 등의 복지사업을 계속 하는 한편 10월10일로 예정된 동화사 개산대제 행사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또 10월경 미술품전시회나 바자회 등을 열어 수익금을 마련하는 한편 매달 각 말사에서 보내오는 700여만원 복지기금과 보시금을 적립, 연말쯤 대대적인 경로잔치나 이웃돕기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성묵 스님은 9세때 충무 미래사에서 출가, 칠곡 보덕암 주지를 거쳐 지난 1월부터 동화사 사회국장을 맡아오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보현사서 예불...감개무량”

#### 북한 다녀온 불교방송 김규철 사장

불교방송 김규철 사장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한 언론사 사장단의 일원으로 동행, 7박 8일 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했다. 김 사장은 이번 방북기간 중에 묘향산 보현사와 평양 정릉사 등 불교유적 참배를 통해 북한불교의 현주소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현사 참배는 방문 일정에 없던 것으로 김 사장의 제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김 사장은 보현사에서 불자인 충청일보 서정욱 사장과 함께 예불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예불이 끝난 뒤에는 최형민 보현사 주지 스님에게 불교방송에서 제작한 예불문 녹음 테이프와 시계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통일을 기원하며 올렸던 보현사에서의 예불은 정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사진 오른쪽)의 제안으로 방북단은 일정에 없던 보현사를 참배했다.

말로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주지 스님 말에 의하면 보현사에서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법회를 열고 하더군요. 사찰 보존 상태도 비교적 좋았습니다. 특히 새로 단장한 팔만대장경 보존소에 보관돼 있는 영인본과 해제본이 인상 깊었습니다.”

김 사장은 12일 목란관 만찬 석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팔만대장경이 잘 보존돼 있는 것에 대해 불교인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 부천 석왕사 백종맞이 경로잔치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14일 지역 어르신 1,000여명을 모시고 제13회 백종맞이 경로대잔치를 열었다. 고산 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과 주지 영담 스님, 김정부 부천시 원미구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잔치는 효행상 시상을 비롯해 예선을 거쳐 올라온 어르신 8팀의 장기자랑, 국악인 등 연예인 초청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 좋은벗들 비무장지대 통일기행

좋은벗들(이사장 법문)은 12~13일 ‘우리는 철원으로 간다’는 주제로 철원 비무장지대 통일문화기행을 다녀왔다. 77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통일문화기행은 철의 삼각 전망대, 제2 땅굴, 월정리역, 백마고지 전승기념탑, 노동당사, 도피안사 당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월정리역 앞에서 경의선 복원을 시작으로 평화 통일이 이뤄지길 발원했다.



### 진각복지재단 도봉사원복지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사장 성초)은 18일 서울 도봉구에 자리한 도봉사원종합사회복지관 개관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개관불사에는 성초 총리원장을 비롯해 일정 교육원장, 임익근 도봉구청장, 이철주 도봉구의회 의장, 설훈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 백혈병 투사하기·여중생 수술비 없어

경남 진해여중 2년 이지건 양은 지난 4월 등교준비중 갑자기 쏟아진 코피가 멈추질 않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언니와 골수조직이 맞아 이식수술이 가능하더라도 1억원이나 드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는 형편.

백혈병의 일종인 악성 조직구 증식을 앓고 있는 생후 16개월된 이윤영 유아는 지난 5월부터 전남대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윤영이네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현재 월세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어 치료비는 물론 7천만원이나 하는 골수이식 수술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도움주실 분은 (02)784-1592(이지건) (02)734-8050(생명나눔실천회) (062)234-6602(이윤영)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 “남북시인 함께 통일문학 열자”

#### 남북 대표시인 고은·오영재씨 첫 상봉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방문 사례인 17일 남북한의 대표적 두 시인도 ‘감격적 상봉’을 가졌다.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이산가족 방문단 환송만찬장에서 만난 민족작가회의 상임고문 시인 고은(67·본지 논설고문) 씨와 북한의 계관시인 오영재(64·사진 오른쪽) 씨는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모국어의 육친이요, 말의 핏줄”이라며 첫만남의 감격을 포용으로 말했다.

오 씨가 먼저 “6·15 남북 정상회담 때 ‘대동강 앞에서’라는 시를 읽는 고 선생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만나고 싶었다”고 감격을 전하자, 고 씨 역시 “12년 전, 무산된 남북작가회담때 오 선생이 쓴 ‘자리가 비었구나’라는 시를 액자로 만들어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남북 시인이 함께 문학잡지를 만들어 통일시대 문학을 열어 나가자”고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통일이 되면 서로를 집에 초대하자고 약속했다. 고은 시인은 최근 자신이 펴낸 시집 《남과 북》 등과 녹차를 선물로 건네며 짧은 만남을 아쉬워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 대구 신행단체협의회 법문

철옹 판공산 성전암 조실은 대구시 불교신행단체연합회가 17일 대구구도회법당에서 개최한 합동대법회에서 법문했다.

### 어린이집 운영 주지 연수

일명 조계종 교육원장은 18일 부산 내원정사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 주지 연수’를 개최했다.

### 한빛은행 불자회서 설법

정관 부산 영주암 조실(전 범어사 주지)은 19일 영주암에서 열린 한빛은행부산분회 정기법

### 일 국제문화예술교류 공연에 특별출연

연, 생노병사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시연한다.

### 부산불교지도자 하계수련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은 19~20일 지리산 구례 화엄사에서 ‘제15회 부산불교계 지도자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 인사

- 동국대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실장=고진호 △학사지원실장 하정운 △인사관리팀장 오광진 △취업지원팀장정 총무팀장=황주환 △시설관리팀장 이현종 △가상대학 교학과장=차선구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윤병식 △인문과학대학장=정갑동 △법정대학장=김희오 △상경대학장=채대식 △한외과대학장=최달영 △야간강좌교과처장=최상영 △여학생실장=이영경 △금강산관광지=박상신 △교육방송국장=이봉준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김영재 △연구교류실장=장해룡 △학생상담실장=김종진 △총무원 총무과장=유지호 △총무원 기획과장=박희승 △총무원 재정과장=이석식 △교육원 교육과장=고명석 △교인포교과장=황찬익

### ‘간수’ 정수일씨 “통일 위해 노력”



15일 8·15특사로 대 전교도소에서 출소한 ‘무하마드 간수’ 정수일 씨(전 단국대 교수)가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과 가족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정씨는 “남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조국통일의 성운이 꿈틀거리고 있다”며 “북한을 잘 아는 불자로서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씨의 목에 108 염주를 걸어준 법산 스님은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미래는 열려있다. 열려있는 미래에 좋은 인연을 만들어 나갈 바란다”며 정씨의 두 손을 꼭 잡았다. 한편 출소 당일 정씨는 40년만에 중국 용정에 거주하는 동생 정승길씨(48)를 만났다. 대전=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 팔리어 대장경 번역 사무소 현판식

민족문화의 최대 보물인 팔만대장경과 국내외 불전들을 번역출간하며 불전을 정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저희 연구원은 '93년 9월 부터 역경인재를 양성키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은 팔리어대장경 번역의 大願을 꾀하고 팔리어 대장경 번역사무소 현판식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왕림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불기 2544년 (2000년) 8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
- 장소: 개운사 법당
- 연락처: (02)929-9991

아울러 제4회 연구과정 및 제6회 연수과정 졸업식이 있겠사오니 졸업생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제 12기 연수과정 및 제 8기 연구과정 모집요강

- 불전 번역 및 연구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깊이 있게 연구코자 하는 비구 비구니 및 재가불자

*가을학기 연구과정 및 연수과정 개설강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개설 강좌 교재 및 담당교수	화엄학특강 (화엄경현담) 해남스님	능엄경연구 해정스님	외전연구 권영대교수님
	팔리어 백도수교수님		육조단경 종범스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56번지 ☎ 02)929-9991 FAX : 02)953-2876

### 佛敎儀式(범음·범패) 학인모집

본대학 불교의식(범음·범패)교육원에서는 권위있는 연구, 교수진을 모시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기본과정	도량식,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 등,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쟁세)다루는 법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공 권공, 영반 지정청 각 시식 다비식 화청등, 사물(천수북, 범성계북, 장엄범북, 요점 진언서줄)
연구반	신중작법, 다계작법, 도량계 천수바라, 나비춤, 사다라니바라, 오고양작법 등

- ◆원서접수: 2000년 8월 10일 ~ 2000년 8월 23일 까지
  - ◆개강일시: 2000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3시
  -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1부
  - \* 본대학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후 수료증 수여,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 초심자, 승녀, 재가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 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성심껏 지도함.
  - \* 본교 휴학생은 이번학기에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43번지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대학사무국  
☎ (051) 442-5952, 467-3316

### 海東元曉佛敎魚山儀式大學